|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미-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하락

미 언론, "11 월 29 일 협상 타결 없으면 추가 관세 부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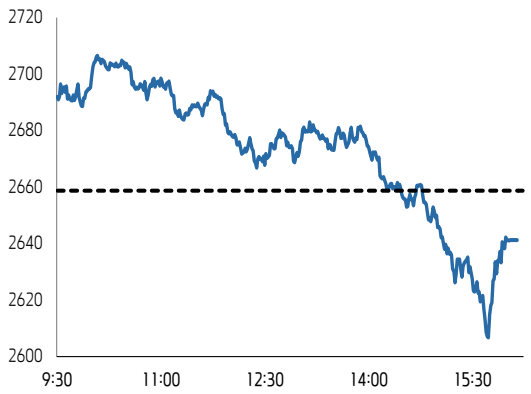
미 증시 하락 요인

미 증시는 장 초반 개별 기업 이슈에 따라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장 후반 미국의 대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 확대. 특히 장중 나스닥이 3% 넘게 급락하기도 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이 축소되며 마감. 한편, 대형 기술주는 하락세가 이어짐. 자사수 매입 중단 우려 및 영국의 세금 부가 가능성이 제기된 여파(다우 -0.99%, 나스닥 -1.63%, S&P500 -0.66%, 러셀 2000 -0.44%)

미 증시 하락은 ①클라우드 부문 경쟁 심화 가능성 제기 ②미국의 대 중국 추가 관세 부과 우려 등이 하락 요인. 전일 IBM 은 레드햇을 330 억 달러에 인수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에 대응을 한다고 발표. '2018 클라우드 현황 보고서'에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사용률을 보면 IBM 은 4 위(15%)에 그치고 있으며 1 위인 아마존의 AWS(68%), MS 의 Azure(58%) 등과는 격차가 크고 3 위인 구글 클라우드(19%)와는 격차가 4%. IBM 이 레드햇을 인수하면서 3 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 향후 아마존 등 상위 업체들도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심화 우려. 특히 IBM 은 레드햇을 인수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고 발표 한 점에 시장은 주목. 향후 경쟁 심화되면 아마존을 비롯해 기술주들도 현금 마련을 위해 자사주 매입 중단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기 때문. 더불어 영국 정부가 인터넷 관련 대형 기술주에 대해 2020 년 4 월 부터 영국에서의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도 하락 요인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한 이유는 미국의 대 중국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부각된 여파. 일부 해외 언론에서 11 월 29 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에 실패할 경우 2,570 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최근 중국과 미국 언론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배제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 관료들은 "그 것을 제외하면 무엇을 위해 만나는가" 라며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은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산업재가 급락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1,996.05	-1.53	홍콩항셍	24,812.04	+0.38
KOSDAQ	629.70	-5.03	영국	7,026.32	+1.25
DOW	24,442.92	-0.99	독일	11,335.48	+1.20
NASDAQ	7,050.29	-1.63	프랑스	4,989.35	+0.44
S&P 500	2,641.25	-0.66	스페인	8,821.20	+1.04
상하이종합	2,542.10	-2.18	그리스	640.07	+1.07
일본	21,149.80	-0.16	이탈리아	19,039.85	+1.9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자동차주 강세

HSBC(+4.76%)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런던과 홍콩 증시에서 급등한 데 힘입어 JP모건(+1.38%), BOA(+0.83%), 씨티그룹(+0.22%) 등 금융주가 동반 상승 했다. GM(+1.47%), 포드(+3.34%), 테슬라(+1.19%)는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로 차량 수요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국 규제 기관이 자동차 구매세를 삭감(10%→5%)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IBM(-4.13%)은 레드햇(+45.38%)을 33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IBM은 레드햇 인수를 위한 비용 동원으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여파로 하락 했으나 레드햇은 급등 했다. 특히 IBM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고객을 위해 레드햇을 인수 했으며, 이는 아마존의 웹서비스(AWS)와 MS, 구글 클라우드 등과 경쟁이 심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아마존(-6.33%), 알파벳(-4.52%), MS(-2.91%) 등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부진했다. 보잉(-6.59%), 캐터필라(-0.93%) 등은 무역분쟁 우려 여파로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3.67%	대형 가치주 ETF	+0.30%
에너지섹터 ETF	+3.17%	중형 가치주 ETF	-0.05%
소매업체 ETF	+0.58%	소형 가치주 ETF	+0.20%
금융섹터 ETF	+0.87%	배당주 ETF	+0.35%
기술섹터 ETF	-1.69%	변동성 ETF	+0.63%
소셜 미디어업체 ETF	-2.08%	대형 성장주 ETF	-1.54%
인터넷업체 ETF	-2.18%	중형 성장주 ETF	-0.46%
리츠업체 ETF	+1.59%	소형 성장주 ETF	-1.07%
주택건설업체 ETF	-1.41%	신흥국 고배당 ETF	-1.26%
바이오섹터 ETF	-0.97%	신흥국 저변동성 ETF	-1.13%
헬스케어 ETF	+0.25%	하이일드 ETF	0.00%
곡물 ETF	-1.13%	물가연동채 ETF	-0.10%
반도체 ETF	-1.19%	Long/short ETF	+0.7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3.31	-1.88%	-7.80%	-15.08%
소재	317.15	-0.28%	-3.85%	-13.56%
산업재	571.24	-1.68%	-6.80%	-14.10%
경기소비재	808.68	-1.53%	-5.15%	-13.64%
필수소비재	560.56	+1.07%	+0.47%	+1.08%
헬스케어	1,013.51	+0.18%	-3.49%	-8.47%
금융	422.94	+0.86%	-2.42%	-8.01%
IT	1,173.73	-1.81%	-5.24%	-11.65%
커뮤니케이션	144.19	-1.61%	-5.84%	-10.09%
유틸리티	274.75	+1.35%	-0.13%	+3.11%
부동산	197.80	+1.56%	+1.96%	-1.1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기관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46% MSCI 신흥 지수는 1.73%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843 계약)에 힘입어 장중 1.4%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이 부각되자 결국 하락 전환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42.8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개인들의 투매 여파로 KOSDAQ 이 5% 넘게 급락하자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며 결국 KOSPI 기준 2,000pt 를 하회하며 마감 했다. 더불어 중국 증시가 주류업체 실적 둔화 여파로 관련주가 급락하자 소비재가 하락을 주도하며 2% 넘게 약세를 보인 점도 부담이 되었다. 한편,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가 IBM 의 레드햇 인수에 따른 경재 심화 및 자사주 매입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을 주도했다. 더불어 장 후반 미-중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관련 이슈는 전일 이미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은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D 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해 대미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점도 미-중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미국 주요 기관들이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부담이 될 여지가 높다. 이를 감안, 중국 증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관련 움직임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전일 중국 정부가 자동차 구매세 인하(10%→5%) 하고 주식 재매입 방향 등 증시 부양책을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전일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다는 점을 감안 이들의 움직임이 시장 변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핵심 PCE 디플레이터 전년 대비 2.0% 상승

미국 9 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0.4%)나 시장 예상치(mom +0.4%)를 하회한 수치다. 개인 소비는 전월(mom+0.5%) 보다 둔화된 전월 대비 0.4% 증가에 그쳤으나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었다. 한편, PCE 디플레이터는 전월 대비 0.1% 상승 했고 전년 대비로는 2.0% 상승 했다. 핵심 PCE 디플레이터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예상치(mom+0.1%)를 상회했다. 전년 대비로는 2.0% 상승 했다.

10 월 달라스 연은 지수는 전월(28.1) 보다 증가한 29.4 로 발표되었다. 설비 가동률 지수(21.6→15.4), 생산지수(23.3→17.6) 등은 둔화되었으나 신규수주(14.7→18.9), 고용지수(17.7→23.9) 등은 개선 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강세

국제유가는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러시아가 산유량을 줄이거나 동결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줬다. 다만, 11 월 5 일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대 이란 원유 제재에 대해 인도와 중국이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자 하락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양호한 경제지표 결과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유로화가 이탈리아 이슈 완화에도 불구하고 독일 메르켈 총리가 총리직은 유지하지만 당 대표를 포기 한다고 발표한 여파로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유로화 약세폭은 제한 되었다.

국채금리는 핵심 PCE 디플레이터가 전년 대비 2.0%로 발표되었으나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높아지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올해 미국 국채 발행이 8 년만에 최고치인 1 조 3,380 억 달러에 달하는 등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국채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미 증시가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전환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 여파로 상승은 제한되는 등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 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3%, 철근도 0.50%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WTI	67.04	-0.81	-3.34
브렌트유	77.34	-0.36	-3.12
금	1,227.60	-0.66	+0.24
은	14.442	-1.76	-0.99
알루미늄	1,984.00	-0.70	-1.15
전기동	6,160.00	0.00	-1.31
아연	2,622.00	-1.09	-1.28
옥수수	366.75	-0.27	-0.74
밀	507.25	+0.40	-0.15
대두	852.25	-0.64	-2.32
커피	114.25	-4.51	-2.89

주요 통화	종가	D-1(%)	D-5(%)
Dollar Index	96.614	+0.26	+0.63
EUR/USD	1.1384	-0.17	-0.70
USD/JPY	112.32	+0.37	-0.44
GBP/USD	1.2802	-0.20	-1.24
USD/CHF	1.0014	+0.44	+0.54
AUD/USD	0.7058	-0.45	-0.32
USD/CAD	1.3133	+0.21	+0.24
USD/BRL	3.7101	+1.87	+0.66
USD/CNH	6.9739	+0.30	+0.53
USD/KRW	1141.40	-0.04	+1.15
USD/KRW NDF1M	1142.88	+0.32	+0.96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087	+1.13	-11.10
한국	2.160	-9.20	-18.20
일본	0.110	-0.30	-4.40
독일	0.377	+2.50	-7.1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스페인	1.541	-2.50	-15.20
포르투갈	1.869	-3.20	-13.80
그리스	4.182	-9.40	-12.60
이탈리아	3.335	-10.70	-15.20